

특별기고



정 기 연
주필

나는 누구를 닮아 가야 할 것인가

의 중심가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으며 각 학교에도 닮아야 할 대상의 동상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닮아가는 것은 부모며, 같은 혈통이 아닌 입양아들도 양부모와 같이 살면 양부모의 모습을 닮아 간다고 한다. 부부는 일신이란 말도 있는데 부부가 일생을 같이 살다 보면 많이 닮아 간다고 하며, 어떤 부부는 닮아서 오누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닮아 가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적 인적 환경에 닮아 가며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하고 바라는 모습의 인간상이 정해졌다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을 닮아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부가 선택하는 위대한 인간상이 배속의 어린 아에게도 꿈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

다니엘 후손이 쓴 '큰 바위 얼굴' 이야기는 1961년도 이후 교과서에 실려 40여 년간 학생들이 감명 깊게 읽고 있는데, 글의 주인공 어니스트(Earnest)는 성실하고 소박한 젊은이로 살면서 집 근처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며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하고 진실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자랐다.

자라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에게는 늘 실망을 안겨왔다. 그

런데 언제나 밝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그가 할아버지가 된 후, 선교를 끝내고 평온한 얼굴을 짓자, 석양에 비친 큰 바위 얼굴과 어니스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 자신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치며 기뻐했다는 이야기다.

이 글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희망을 지니고 열심히 사는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성공자를 닮아 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닮아야 할 것이 많은데, 나는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먼저 나를 낳아 주신 부모의 장점을 닮아야 하며, 다음은 내가 성공 목표로 하는 위인을 정해,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심신 모습이 위인처럼 돼 간다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성공하고 싶은 분야의 위인을 찾아 정하고 그 분과의 만남을 통해 닮아 가는 것인데, 만남에는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간접 만남은 그분들의 전기전집 독서를 통해 간접으로 만나는 것이다.

발명가의 꿈을 두었다면 에디슨을 만나야 하고 정치에 꿈이 있다면 세종대왕을 만나야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빌 게이츠나 정주영 회장을 만나서 그분의

삶을 닮아야 한다. 우리는 부모를 닮고 위인을 닮고 그다음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가까이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인 하느님은 내가 닮아야 할 최상의 목표로 삼고 가까이 사는 것이다. 어떻게 닮아 갈 것인가? 그분의 생각과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항상 가까이 사는 것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동심원을 그려보면 내가 닮아야 할 것들이 부모 형제 이웃이 있는데, 가까이 있다 해서 닮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닮아야 할 대상을 정하고 접근해야 가까워지고 닮는다.

하느님은 동심원에서 나와 거리가 있지만,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영접하면 나의 모습은 하느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느님을 닮아 가는 것인데, 종교계에서 바라는 것은 종교의 위대한 대상을 믿고 따르며 닮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바라는 닮아야 할 목표인 대상을 정하고, 닮아 가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항상 최상의 목표 대상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관하시는 조물주(造物主) 하느님 임을 알고 하느님을 닮아 가는 삶이 됐으면 한다.

우리는 닮아 가야 할 대상을 어려서부터 정해 그분을 닮아야 하며 그분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야 성공한다.

독자기고

생명을 살리려면 단아야 하는 방화문

한 민 호

원도소방서 고금119센터 소방장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이지만 이는 난방기구 사용률이 높아지고 바짝 마른 낙엽, 나무 등이 불에 타기 쉬운 요건을 만들어 겨울철은 항상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불이 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대피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차이로 화재 시 생사가 좌우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화재 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은 화재 발생 시 우리를 지켜주는 방화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방화문은 평소 닫아두는 게 원칙이나 환기나 편의를 위해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화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에 의한 죽음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방화문 개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혹 화재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재가 발생한 층은 물론 다른 층에서까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을 종종 접하는데, 이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층과 다른 층의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사 사고가 일어났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을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방화문의 폐쇄·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 사용상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보루와도 같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방화문을 닫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혹시 개방돼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방화문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내가 먼저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시 위험 요소 개선에 참해주길 바란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 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 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이기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 사 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